

# 근대 전환기 개신교 찬송가와 근대 국가 만들기 -윤치호의 <『讚美歌』(1908)>를 중심으로

조경덕 평택대 조교수

## 1. 들어가며

이 연구는 한국 근대 전환기 개신교 찬송가가 근대 국가 만들기라는 과제에서 수행하였던 역할과 한국어문에 미친 영향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최우리나라 기독교 찬송가는 천주교의 천주가사에서 시작한다. 천주가사의 처음은 1779년 이벽(李穡)의 「천주공경가(天主恭敬歌)」와 정약전(丁若銓)의 「십계명가(十誡命歌)」다. 이로부터 시작하여 현재 약 200여 종이 전승되고 있다.(민경배, 1997:59) 최초의 개신가 찬송가집은 1892년 북감리교 선교부에서 간행한 『찬미가』다. 그 이후로 찬송가집은 ‘찬양가’, ‘찬성시’ 등의 제목으로 꾸준히 간행되었다. 감리교는 찬송가 집 제목을 주로 ‘찬미가’로 하였고 장로교는 ‘찬성시’로 하다 1908년 장로교와 감리교가 연합하여 『찬송가』를 간행하였다.<sup>1)</sup> 이들 찬송가집은 한국 초기 기독교의 선교·신앙 상황과 근대 전환기의 민족 정서 그리고 한국 어문의 형성사를 살펴볼 수 있는 매우 귀한 자료다.

그간 찬송가에 대한 연구는 신학에서 교회사 연구, 역사학에서 근대사 연구, 음악학에서 음악사 연구 등으로 진행되어 왔다. 최근 문학 연구에서도 찬송가가 한국 시가 문학에 끼친 영향과 번역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 중이다.(김승우, 2013) 각 분과 학문의 연구는 공통된 텍스트를 가지고 번역 문제, 한글 가사 문제, 주제 문제 등을 살핀다는 점에서 완전히 분리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궁극적인 연구의 지향점은 다를 수밖에 없다. 신학에서는 찬송가 텍스트가 어떻게 초기 개신교 신앙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역사학 연구는 찬송가 텍스트를 사료로서 다루며 그 텍스트에서 당시 사회·문화의 상황과 움직임을 읽어낸다. 음악사 연구는 서양 음악 이입의 한 갈래로서 찬송가집을 검토한다.

근대전환기는 한국어 글쓰기가 정립되고 근대 문학이 형성되어가던 시기이다. 이 시기 문학 연구의 주요 주제는 근대 국가 이념이 어떻게 매체에 구현되었으며 문학 장르가 어떻게 형성되고 성립되었는기이다. 그런데 개신교 찬송가를 텍스트로 한 근대 문학 연구는 아직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개신교 찬송가에 대한 문학적 연구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관심을 촉구한 것은 비교적 이른

1) 이 시기 동안 간행된 찬송가집 중 현재 확인할 수 있는 판본은 『찬미가』 8책, 『찬양가』, 4책, 『찬성시』 4책 등이다.

시기에 이루어졌다. 이광수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끼친 영향에 대해 말하는 자리에서 성경과 찬송가가 번역이 되어 한글의 권위가 생기고 널리 보급되었다고 말하였다.(孤舟, 1917) 여기서 나아가 찬송가 자체에 관심을 표한 이는 송민호다. 그는 개화시 이전의 찬송가에 주목하며 찬송가가 “西歐的 노래의 嚆矢요 開化期 詩歌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또 노래 形式을 널리 普及시킨 功績은 多大”(송민호, 1971)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독립신문』의 가사가 찬송가에서 왔다고 지적하며 『독립신문』이 미국에서 돌아온 서재필이 주관했다는 점을 그 근거로 삼았다.(송민호, 920) 『독립신문』 가사와 찬송가를 관련지은 것인데 찬송가가 근대 문학에 끼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본격적으로 문학사적인 기반 위에 찬송가에 대해 연구를 시도한 이는 김병철이다.(김병철, 1975) 그는 ‘찬송가 번역사’의 관점에서 연구를 하였다. 주로 관심을 가진 텍스트는 한국 문학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되는 19세기말부터 20세기초까지 ‘찬미가’, ‘찬양가’, ‘찬성시’라는 제목으로 간행된 찬송가들이다.<sup>2)</sup> 그는 이 찬송가들의 번역자, 원 노래 제목 등을 밝히는 기초적이면서 방대한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박재훈의 『찬송가 작가의 면모』(서울 전도사, 1955-1958)와 사이토 다케시(齋藤勇)의 『讚美歌研究』(研究社, 1962)를 참고하여 초기 개신교 찬송가의 수준을 평가하였다.<sup>3)</sup> 또한 각 찬송가집에 동일하게 실린 찬송가를 늘어놓고 번역 양상을 살폈으며 초기 한국 찬송가가 초기 애국 가사에 끼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논의하였다. 특히 『독립신문』에 실린 애국 가사들이 그 형식적 측면에서 찬송가의 영향을 받았음을 규명하였다.

이후 음악학계에서 조숙자(조숙자, 1995; 조숙자, 2003), 나진규(나진규, 2019), 역사학계에서 민경배(민경배, 1997) 등의 연구로 개신교 찬송가에 대한 총체적이고 전반적인 이해는 더 축적되었으나 문학계에서는 김병철의 연구처럼 근대 전환기 개신교 찬송가를 총체적으로 조망하는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권영민은 『독립신문』의 개화가사를 논하면서 이 개화가사가 전통적인 가사에서 볼 수 있는 4·4조의 율문 형식을 따르고 있지만 각 연마다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는 후렴 구절을 붙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이는 주제를 강조하기 위한 수사적 장치에 해당한다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권영민, 2010) 김병철의 선행 연구를 참조하였다면 찬송가와의 영향 관계를 따져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찬송가가 근대 문학에 끼친 영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아마도 이것은 서구 문학과 문화의 ‘영향사’보다는 주체적인 관점에서 우리 문학사를 파악하려는 의도에서 비롯하였다고 판단된다.

기독교와 근대라는 측면에서 일본은 우리와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김병철은

2) 1908년에 장감 양교파가 간행한 『찬송가』 전까지 간행된 판본을 연구 대상 텍스트로 삼았다. 위의 책, 73면.

3) 찬송가 수준을 평가하는 방법은 박재훈과 사이토 다케시의 책에 수록된 찬송가가 수준 있는 찬송가라고 전제하고 그것이 수록된 비율을 살폈다. 엄정한 방법은 아니다.

사이토 다케시의 연구를 주목했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참조할 수 있는 일본 관련 연구가 있다. 최근 박선희는 메이지 시대 창가집인 『幼稚園唱歌集』(1887), 『尋常小學唱歌』(1911)등을 분석하여 메이지 시대 창가 탄생과 더불어 일본 근대 음악이 ‘국민 창출’의 과정에 미친 영향을 살폈다. 그에 따르면 일본의 근대 초기 기독교는 근대 국민 창출이라는 메이지 이데올로기의 환경 속에서 찬송가를 소통의 도구로 활용하였으며 메이지 정부는 가치 표상의 전달 도구로써 찬송가를 수용했다고 평가한다.(박선희, 2016) 이 부분은 우리 근대 문학사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독립신문』의 애국 가사들이 많은 경우 찬송가의 가사나 곡조의 영향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윤치호가 편집한 『찬미가』(1908)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논의하기에 매우 좋은 텍스트가 될 것이다.

윤치호(尹致昊, 1864-1945)는 1880-90년대 초반에 일본과 중국 그리고 미국에서 유학한 후 한국으로 돌아와 독립협회와 대한 자강회 회장을 지낸 개화-자강 운동의 핵심 인물이다. 그는 1908년에 『찬미가』를 역술하였다. 서문을 살펴보면 1908년 판본은 제2판이고 초판은 1905년에 간행되었다. 초판본은 현재 확인할 수 없다. 모두 15장으로 구성되었고 그 중 5장이 내용상 ‘국가 만들기’와 관련 있다. 그 외 다른 찬송은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나 ‘국가’ 관련 담론에서 살펴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런 점에서 윤치호의 『찬미가』(1908)은 당시 개신교 찬송가와 ‘국가 만들기’의 관계가 잘 드러난 텍스트이다.

### 윤치호의 『찬미가』(1908)

윤치호의 『찬미가』 표지에는 가운데에 제목, ‘찬미가’가 표기되어 있다. 이전 1897년에 출간된 『찬미가』에는 가운데 제목 ‘찬미가’ 양쪽으로 간행 연도가 서기, 우리나라 연호로 나란히 병기된 것이 비교할 때 단출한 편이다. 책 판권지에는 “隆熙二年六月二十日再版印刷隆熙二年六月二十五日發行”으로 간행 연도가 기재되어 있다. 1908년에 재판이 발행되었다는 것인데 초판 간행 연도에 대한 정보는 없다.(조서운, 1908:239) 또한 ‘譯述者 尹致昊’으로 저자 사항이 표기되어 있다. 『찬미가』 편찬과 저술을 윤치호가 하였다(4)

『찬미가』에는 모두 15장의 찬송가가 수록되어 있다. 제1장, 제10장, 제14장은 ‘애국’의 내용을 담은 노래다. 당시 찬송가집이 대개 그렇듯이 『찬미가』에도 악보가 없다. 그래서 노래 가사 상단에 제목과 함께 곡조명이 병기되어 있다. 제1장은 “KOREA/ Tune America”, 제10장은 “PATRIOTIC HYMN NO. III / TUNE AULD LANG SINE”, 제14장은 “Patriotic Hymn / TUNE AULD LANG SINE”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제1장의 곡조 ‘America’는 영국 국가이다. 현행

4) 이외 판권에 대한 정보로 “發行者 金相萬 / 印刷所 塔印社 / 發賣所 廣學書舖”가 있다. 정가(定價)는 ‘二錢五厘’이다.

찬송가 「피난처 있으니 환란을 당한 자 이리오게」이다.(김영숙, 1998:45) 황제를 찬양하는 곡으로 일명 ‘황제송’이라고 불린다. 제10장과 제14장은 제목과 곡조가 같다. 곡조, ‘Auld Lang Sine’은 스코틀랜드 민요다. 현행 찬송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의 곡조다.(조서윤, 2018:256)

윤치호의 『찬미가』를 먼저 주목한 이는 민경배다. 그는 윤치호가 “애국의 충정에다가 그 스스로 운문하여 그래도 내놓을 만하다고 해서” 『찬미가』를 간행했다고 평가하였다. 『찬미가』에 애국가 세 곡이 포함된 것에 주목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한국 교회는 나라의 비극과 고난과 더불어 동행하였다. 따라서 교회 찬송가와 충군(忠君)의 역사는 “영켜 혈맥을 이루었다”(민경배, 1997)고 말한다.

김영숙은 윤치호의 『찬미가』는 15편 적은 편수의 찬송가를 담고 있지만 애국가류가 포함되어 있어 “초창기 한국 교인들의 애국 애족하는 마음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찬송가”라고 평가한다. 또한 현재 불리는 「애국가」가 최초로 수록되어 있는 귀중한 찬송가집이지만 감리교에서 공식 간행했다는 증거가 없고 널리 보급되지 못했다고 아쉬워하고 있다.

조서윤은 음악사 측면에서 윤치호의 『찬미가』를 연구하였다. 그는 우선 윤치호가 서구식 문명 화만이 19세기 말의 조선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지녔다고 했다. 그리고 찬송가 가사 15곡의 내용을 곡조와 함께 분석하여 살폈다. 그에 따르면 윤치호의 『찬미가』는 민족의 사명을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 구현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평가했다.(조서윤, 2018)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 두 가지다.

첫째, 윤치호의 『찬미가』(1908) 분석을 통해 근대 전환기 ‘국가 만들기’라는 이념과 개신교 찬송가의 영향 관계를 살필 것이다. 1차적으로 개신교 찬송가가 당시 신앙인들의 신앙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겠지만 근대 전환기이며 국운(國運)이 쇠퇴하는 시기적 특성에 따라 찬송가는 ‘애국’, ‘계몽’을 강조하는 이데올로기에 복무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규명할 것이다.

둘째, 개신교 찬송가의 번역 작업을 통해서 근대 전환기 번역의 문제를 검토할 것이다. 『찬미가』(1908)는 몇 개 찬송가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번역 텍스트다. 수록된 찬송가는 여타 다른 찬송가 집에 수록된 찬송가와 겹친다. 이때 번역이 다를 수 있는데 이 차이와 현대 찬송가 번역과의 차이를 비교하며 『찬미가』의 번역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윤치호 번역의 양상과 특징을 추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 2.1. 국가 만들기

윤치호의 『찬미가』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이 있다. 첫째, 구성상의 특징으로 당시 간행되던 찬송가집과는 달리 애국가 세 편과 함께 찬송가가 실려 있다. 둘째, 한국인 개인이 역술(譯述)하여 간행한 최초의 찬송가집이다. 셋째, 애국가 세 편 중의 하나는 오늘날 불리는 「애국가」로서 윤치호

가 「애국가」의 작사자임을 입증하는 증거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찬미가』가 윤치호의 「애국가」 작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우선 ‘역술’을 편집과 번역 가사의 수정 정도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기를 철저히 기록하던 그가 『찬미가』 번역에 관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점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애국가」는 『찬미가』가 간행되기 이전에 『독립신문』이나 『대한미일신보』 등에 그 편린이 게재된 경우가 있기에 윤치호가 그것을 채록하여 『찬미가』에 수록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애국가」 작사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진행중이다. 앞서 이글의 목적을 밝혔듯이 「애국가」 작사자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다. 다만 「애국가」 작사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연구는 『찬미가』의 애국가와 국가 만들기라는 주제를 살피는데 주요한 참조점을 제시한다.

우선 앞서 말했다시피 『찬미가』 수록곡 15곡 중, 제1장, 제10장, 제14장은 ‘애국’의 내용을 담은 애국가다. 윤치호는 당시 찬송가집과는 다르게 애국가와 찬송가를 함께 수록한 찬송가집을 편찬한 것이다. 여기에는 생각인 문명이 발달하고 부강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종교인 기독교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윤치호의 신념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한 강효백의 의견이 흥미롭다. 그는 윤치호가 애국가 작사자일 수 없다는 전제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윤치호는 일제 시대 중추원장을 지내는 등 대표적인 친일 지식인이라는 관점에서다. 그에 따르면 애국가 세 편을 수록한 『찬미가』가 “얼핏 보면 대단히 독창적인 것 같지만 일본 기독교 협회에서 펴낸 1903년 『찬미가』의 체제와 구성을 본따 엮어낸 것”이다. 이 『찬미가』는 감리교파 목사 벳쇼우메소스케(別所梅之助, 1872-1945) 등 4인에 의해 창작 편집되었고 일본 제국 해군 군목 오사키 히로미치(和田秀豊) 등이 방역(邦譯)했으며 1931년판 『찬미가』가 나오기 전까지 일본 전국의 교회에서 사용되었다. 주목할 점은 이 찬송가에 일본의 기미가요, 명치송, 부상가 3곡의 애국가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강효백, 2021: 254) 이런 점에서 강효백은 윤치호의 『찬미가』 구성은 일본의 『찬미가』(1903)를 그대로 베낀 것이라고 주장하며 『찬미가』와 그것에 수록된 「애국가」를 왜색이라고 평가 절하한다.(강효백, 2021: 62)

임진택은 애국가의 작사자를 가리는 자리에서 ‘역술(譯述)’의 의미를 따져 묻는다. 『찬미가』에 수록된 세 곡의 애국가는 윤치호가 직접 지은 것이 아니라 열두 곡의 찬송가처럼 편집과 단어 바꾸기 등의 가필을 한 정도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찬미가』의 애국가가 이전에 게재된 경우를 제시한다.(임진택, 2020: 170)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임진택이 새로이 제시한 것이 아니라 이전 연구에서 밝혀진 바다. 여기에서는 『찬미가』 판본과 나란히 견주어 비교하며 논의를 이어가보자.

| 「무궁화<br>노리」, 『독립신문』, 1899년 6월 29일                                                                                                                                                                                                 | 『찬미가』(1908). 제10장                                                                                                                                                                               |
|-----------------------------------------------------------------------------------------------------------------------------------------------------------------------------------------------------------------------------------|-------------------------------------------------------------------------------------------------------------------------------------------------------------------------------------------------|
| —성주 신손 오백년은 우리 황실이요<br>산고 슈려 동반도는 우리 본국일세<br>후렴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br>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br>二이국 하는 열심이기 북악 갖치 놓고<br>충군 하는 일편 단심 동해 갖치 곱히<br>三천만인 오직 한 마음 나라 사랑 하야<br>사룡공상 귀천 업시 직분만 다 하세<br>四우리 나라 우리 황태 황태이 도우사<br>국민 동락 만만세에 태평 독립하세 | —승자신손 천만년은 우리황실이요<br>산고슈려동반도난 우리본국일세<br>후렴 무궁화삼천리 화려강산<br>대한사람 대한으로 길히보전하세<br>二애국하난열심이기 북악갖치놓고<br>충군하난일편단심 동해갖치곱히<br>三이천만인오죽한맘 나라사랑하야<br>사룡공상귀천업시 직분만다하세<br>四우리나라우리넉군 황천이도우사<br>국민동락만만세에 태평독립하세 |

눈에 띄는 차이는 ‘오백년’이 ‘천만년’, ‘천만인’이 ‘이천만인’, ‘황태’가 ‘넉군’, ‘넉민’이 ‘국민’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찬미가』의 초판 연도를 모르므로 일단 1908년 재판본의 간행 연도를 염두에 두고 분석해보자. 우선 ‘조선’이란 나라의 형식적 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가 보인다. ‘오백년’이란 구체적으로 조선이 점유한 세월을 지우고 ‘천만년’이라는 추상적 시간을 내세웠다. ‘황태’는 대한제국의 황제다. 그것을 소거하고 ‘넉군’ 즉 일반 명사인 ‘임금’을 내세웠다. ‘넉민’을 ‘국민’으로 했는데 이것은 근대 국가를 생각한 것 같다. ‘천만인’이 ‘이천만인’이 되었는데 10년간 인구가 두 배로 늘 수는 없다. 이 의미는 더 속고의 여지가 있다. 덧붙여 『찬미가』에는 ‘·’가 쓰이지 않았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번역의 문제를 다룰 때 살펴보기로 하겠다.

『찬미가』 제10장의 가사에는 오늘날 ‘애국가’의 후렴구가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의 강조, 하늘이 우리나라와 우리 임금을 도울 것이라는 믿음, 사농공상 구별없이 직분을 다하자는 실용 정신, 마지막으로 독립에 대한 염원이 담겨 있다. 그리고 십년 동안 변한 가사에는 그간 국내 정세의 편린이 기입되어 있다. 『독립신문』의 「무궁화 노래」가 이미 누군가 지은 노래라면 윤치호는 몇 개의 단어를 변한 정세에 맞게 수정한 것이 된다. 그런데 『독립신문』의 「무궁화 노래」가 윤치호가 작사한 것일 가능성이 있는 자료가 존재한다.

A. 비직학당 학원들이 무궁화 노리를 불으는디 우리 나라 우리/넉군과 빅성이 흐긋지로 만만세를 길거하야 태평 독립 하여 보세 하니 외국 부인이 또 악기로 룰에 못췌야 병창 하더라  
 (중략) 비직 학당 학원들이 나라 사랑하는 노리를 불으니 외국 부인이 또 악기로 룰에 못췌야 병창 하더라<sup>5)</sup>

B. The Paichai boys sang a song “National Flower” which was composed by the poet laureate of Korea Mr. T.H.Yun, for the occasion. They sang it to the tune of “Auld Lang Syne” accompanied by Mrs. M.F. Sarenton on the organ. (중략) The Paichai boys then sang the national hymn “Korea” in the tune of “America” or “God Save the Queen.”<sup>6)</sup>

A는 『독립신문』 1897년 8월 17일자 기사이고 B는 같은 날 『독립신문』 영문판 기사다. 배재학당 학생들이 ‘무궁화 노래’를 불렀다는 내용이다. 노래 가사가 약간 소개되어 있는데 “태평 독립하여 보세”다. 앞서 살펴본 「무궁화 노래」의 마지막 절 가사와 비슷하다. 영문판 기사 B에 주목해보자. 여기에 “National Flower”를 ‘Mr. T.H.Yun’이 작사했다는 내용이 있다. 1899년 6월 29일자에 실린 가사와 같은 가사라고 확인할 수는 없지만 윤치호의 작사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자료다. 또한 영문판 기사는 국문판 기사에 비해 더 상세하여 노래의 곡조도 소개한다. “National Flower”의 곡조는 “Auld Lang Syne”이다. 『찬미가』의 제10장 「무궁화 노래」<sup>7)</sup>의 곡조도 “Auld Lang Syne”다. 같은 노래일 가능성을 더 높여주는 근거다. 한편 영문판 기사는 “Korea”라는 노래를 “America” 혹은 “God Save the Queen” 곡조에 맞추어 불렀다는 내용을 소개한다. 이 노래는 『찬미가』 제1장과 제목과 곡조가 같다. 이러한 점들로 보아 『찬미가』의 애국가들은 1897년 즈음에 이미 있었던 노래들이라 할 수 있다.

덧붙여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배재학당의 행사 내용을 기술하는 방식이다. 『독립신문』에 이와 같이 각종 행사를 시간순으로 소개하는 기사가 종종 실린다. 다음의 인용문도 그런 기사 중 하나다.

대조선 서울 야소 교회에서 너일 대군주 폐하 탄신 경축회를 하느듯 아침에는 각 레릭당에서 대군주 폐하와 조선 인민을 위하여 하느님의 찬미와 기도를 홀터이요 오후 네시에 모화관에 모도 모혀 이국가로 노리히고 명망있는 사람들이 연설도 홀터이라 무론 누구든지 이날을 경축히 생각 하는 이는 모도 모화관으로 와서 궂치 이국가로 노리히고 연설도 들으시오<sup>8)</sup>

고종 생일을 기념한 행사를 소개하는 기사다. 아침과 오후에 열린 행사를 하나로 묶어 제시하고 있다. 아침에는 예배당에서 고종과 나라의 안녕을 위한 찬양과 기도를 한다. 오후에는 ‘모화관’에서

5) 『독립신문』, 1897년 8월 17일자.

6) 『THE INDEPENDENT』 1897년, 8월 17일자.

7) 『찬미가』의 해당 노래의 제목은 ‘Patriot Hymn’이다.

8) 『독립신문』, 1896년 9월 1일자.

애국가를 부른다고 하였는데 이것으로 보아 하루 일정에 ‘찬송가’와 ‘애국가’가 한 데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찬미가』의 애국가와 찬송가의 조합은 이러한 독립협회의 행사 식순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독립협회의 시각과 입장에서 이러한 조합은 낯선 것이 아니다. 굳이 그것을 일본의 『찬미가』에서 따 왔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실사 일본의 『찬미가』의 형식을 모방했다 하더라도 『찬미가』를 왜색이 깊은 친일 찬송가집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강효백, 2021:64)<sup>9)</sup> 일본의 지배 자장 아래 펴낸 책이지만 그 안에 담긴 ‘애국’과 ‘독립’을 향한 염원을 읽어내는 독자의 마음까지 지배하지 못한다. 윤치호가 식민화를 어쩔 수 없는 현실로 인식하고 말년에는 일본에 협력한 지식인이라 하더라도 『찬미가』에서 내세운 기치는 그것대로 독자의 발분(發憤)을 도왔다.

## 2.2. 윤치호의 번역

윤치호는 평생 일기를 썼다. 일기 쓰기는 1883년 1월 1일, 그의 나이 18세부터 시작하였고 미국 유학중이었던 1889년 12월 7일부터는 영어로 일기를 썼다. 첫 일기를 썼던 때 그는 신사유람단 어윤종의 수행원으로 일본에 있었다. 후일 자신의 경험을 기억하고 싶어 일기를 쓰기 시작한 것이다.(박지향, 2010:26) 윤치호의 일기는 윤치호 개인 연구를 위한 자료이자 한국 근현대사 연구에 도움이 되는 귀중한 자료다. 『찬미가』를 역술한다는 것이 윤치호에게 어떤 의미였는가를 연구하기 위해 당연히 연구자들은 그 어간의 일기를 찾아보았다. 그러나 일기에 『찬미가』의 기록은 없었다. 그래서 윤치호가 『찬미가』와는 관련이 없는가 하는 의문을 자아내기도 한다. 그런데 찬송가 번역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한 대목은 있다.

만일 시인만이 시(詩)를 번역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웨슬레(Ch. Wesley, 1707-1788)나 왓츠(I. Watts, 1674-1748)의 경건한 찬송들을 어느 정도는 유창하게 번역하기 위해서, 그래도 나보다는 대단한 시가적 재능과 경건한 심령을 가진, 그런 사람이 번역해야 한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겠는가. 지금 사용되고 있는 한국말 찬송가들은 이로 말할 수 없이 그 번역이 빈약해 부끄럽다.(윤치호, 1975)<sup>10)</sup>

이 일기는 1897년대 일기다. 『찬미가』를 펴낸 1908년 즈음과는 서로 거리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윤치호의 『찬미가』 편찬과 관련하여 두 가지 의미 있는 정보를 인출할 수 있다. 하나는 그가 찬송가 번역에 관심이 많다는 것이다. 그는 당시 번역된 찬송가에 불만을 표하면서

9) 강효백은 『찬미가』뿐만 아니라 『독립신문』에 실린 애국가들도 당시 200여 수의 ‘막말애국가(幕末愛國歌)’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10) 1897년 5월 3일자.



찬송가를 번역하려면 문학적 재능과 경건한 신앙이 요구된다고 자격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대표적 찬송 시인으로서 찰스 웨슬리를 꼽았다는 사실이다. 찰스 웨슬리는 신학자이자 찬송가 작사가이며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Jhon Wesley, 1703-1791)의 동생이다. 실제로 『찬미가』에는 찰스 웨슬리가 작사한 곡으로 제2장 「Jesus Lover of My Soul」, 제5장 「탄일찬미가<sup>11)</sup>」가 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윤치호의 찬송가 번역을 살펴보고자 한다. 번역 찬송가 12곡 중에서 3곡을 뽑았다. 번역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한 비교군은 원래 원어 찬송가, 이전의 찬송가 번역 판본이다. 3곡을 뽑은 기준은 윤치호가 즐겨 부르던 찬양, 상대적으로 당시 많은 찬송가집에 실린 찬양, 백낙준이 번역이 잘 되었다고 평가한 찬양이다.

### 2.2.1. 즐겨 부르던 노래

윤치호는 1911년 105인 사건으로 검거되어 5년형을 선고받았다. 옥중 생활 중에 자신이 번역한 『찬미가』 중 12장을 즐겨 불렀다고 한다.(김영숙, 2018: 21) 옥중에서 불안하고 두려운 심정을 찬양을 통해 위로 받은 것이다. 다음은 「How Firm a Foundation」의 1절이다.

| How Firm a Foundation                                                                                                                                                                         | 1. 『찬미가』 1905                                            | 2. 『찬미가』 1908                                            |
|-----------------------------------------------------------------------------------------------------------------------------------------------------------------------------------------------|----------------------------------------------------------|----------------------------------------------------------|
| How firm a foundation, ye saints of the Lord,<br>Is laid for your faith in His excellent word!<br>What more can He say than to you He hath said,<br>To you who for refuge to Jesus have fled? | 쥬를밋는자의단단흔터가<br>쥬의가특흔말슴에다잇네<br>구원흠엇으려쥬씩피흔자<br>네게더흐실말슴무엇인가 | 쥬를밋난자의견고한터가<br>거룩하신탈삼에다잇사니<br>구원함엇으려쥬씩나온자<br>네게더하신탈삼무엇인가 |

번역 찬송가는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하는 것보다 곡조와 더불어 회중들이 처한 상황에 맞추어 의역한 것이 더 애송되었다. 오른쪽 번역 찬송을 보면 한 행의 글자 수를 모두 11자로 맞추었다. 그리고 ①은 “6·5/5·6/6·5/7·4”로 ②는 “6·5/7·4/6·5/7·4”로 울격이 구성되어 있다. ①과 ②를 비교하면 글자 수가 같고 운율이 비슷하다. 그리고 번역문도 대개 비슷한 가운데 몇 가지 단어가 교체되어 있다. 우선 ②는 ①을 토대로 번역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애초 원어에서 ①을 만든 것에 비해 ②의 노력이 적게 들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②의 번역의 특징은 ‘·’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거룩하신’, ‘다잇사니’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높임말을 썼다. 주어가 ‘주’이니 이치상

11) 한국어 제목이 표기되어 있는 곡이다. 대부분의 곡은 영어 제목만 있다.

맞게 번역하였다. 높임 선어말 어미를 씬으로 인해 글자 수를 맞추기 위해 ‘쥬의’를 빼는데 앞 절을 통해서 능히 예상할 수 있으니 의미에는 변화가 없다. 또한 ‘쥬씩피흔자’를 ‘쥬씩나온자’로 바꾸었다. 뒤 번역이 주체성을 강조했으며 의미가 더 뚜렷하다.

### 2.2.2. 번역 빈도가 높은 노래

다음은 「Holy, Holy, Holy」(이중태, 2007:14)<sup>12)</sup>다. 앞서 다음은 원어 찬송은 제외하고 번역 찬송가 세 곡을 연달아 병치시켰다. 세 번역문의 차이를 보는 것이 의미가 있어서이다.

| 1. 『찬미가』(1895) | 2. 『찬미가』(1905) | 3. 『찬미가』(1908) |
|----------------|----------------|----------------|
| 성지성지성지전능하신쥬여   | 성지성지성지전능하신쥬여   | 성재성재성재전능하신쥬여   |
| 일은아츨우리가쥬찬미하겠네  | 일은아츨우리쥬를찬미하넛다  | 일은아츨우리찬송을나나이다  |
| 성지성지성지즈비하고능하   | 성지성지성지유복하시웁고   | 성재성재성재자비하고능하   |
| 삼위일테유복된하느님     | 삼위일테가되신쥬로다     | 삼위일테로복된하나님     |

위 세 가지 번역 찬송을 늘여다 놓고 보면 ①과 ③이 닮았다. 번역시 ③은 ①을 참고하였을 것이다. 물론 ①과 ② 둘을 참조했을 가능성도 있다. 상대적으로 많은 찬송가를 참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후대에 번역한 찬송가가 번역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다. 전체적으로 글자 수는 동일하다. 율격은 다소간 차이가 있다. 1행은 ‘6·4·2’로 같지만 2행은 ①이 ‘4·3·6’, ②와 ③이 ‘4·4·5’다. 3행의 경우 ①과 ③이 ‘6·4·2’이며 ②는 ‘6·2·4’다. 4행은 ①,②,③ 모두 ‘5·5’이다. 율격의 경우 ③이 서로 겹치는 경우가 많다. 나중에 번역하며 더 좋은 율격을 찾은 것이다.

마지막 4행을 더 자세히 살펴보자. ①과 ②가 비슷한데 ①은 ‘유(有)’라는 한자어를 써 의미가 어색하게 되어 있다. ②는 서술어로 끝나고 ③은 명사로 맺는다. 그렇다면 “삼위일테가 되신 쥬로다”와 “삼위일테로 복된 하나님” 중 어느 번역이 더 나은가.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 혹은 주가 삼위일체가 되었다는 것보다 하나님 혹은 주는 삼위일체 라는 ③의 번역이 더 낫다. 덧붙여 ③은 ‘·’가 쓰이지 않았다. 윤치호의 번역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12) 현행 찬송가에는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8장에 실려 있다. 레지날드 히버(Reginald Heber, 1783-1826)가 작사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일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이 하나님은 신성하시고 능력이 강하시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다. ‘거룩’을 세 번 반복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암시한다.

### 2.2.3. 번역이 잘된 노래

마지막으로 「From Greenland's icy mountains」을 검토하자. 이 곡은 원어 번역 과정에서 주의할 부분이 있으므로 원어 찬송도 병치 배열하였다. 이 곡을 선택한 이유는 전택부의 흥미로운 회고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1973년 YMCA 70주년 기념식에서 백낙준은 윤치호가 번역한 찬양을 암송하며 “아, 얼마나 좋은 번역입니까? 지금의 저 북방 얼음산보다”라고 하였다 한다. 이 찬송의 번역을 특히 눈여겨보고 좋아했다는 것이다.(전택부, 1998:202)

| From Greenland's icy mountains                                                                                                                                                                                                                         | 1. 『찬미가』 1895                                                        | 2. 『찬미가』 1908                                                         |
|--------------------------------------------------------------------------------------------------------------------------------------------------------------------------------------------------------------------------------------------------------|----------------------------------------------------------------------|-----------------------------------------------------------------------|
| From Greenland's icy mountains,<br>From India's coral strand,<br>Where Afric's sunny fountains<br>Roll down their golden sand;<br>From many an ancient river,<br>From many a palmy plain,<br>They call us to deliver Their<br>land from error's chain. | 북빙히로조차서 인도국산지와<br>동편서서편산지 모든나라섬과<br>허다흔여려섬과 무수흔도방에<br>규주요기브라며 샤도톨쫓터니 | 쓰릴난어름산과 인도산호섬과<br>아프리카운내에 금모래칼닌곳<br>강과산과널흔들 사람산데마다<br>죄의속박풀으라 우리를 부르네 |

번역 찬송의 글자 수는 ①과 ②가 같다. 그런데 다른 찬송과는 달리 번역어가 상당히 다르다. 백낙준이 번역 문제를 지목한 것이 공연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②는 원어의 지명을 그대로 살렸다는 점이다. 원어 찬송의 ‘Greenland’와 ‘Afric` s’를 ①은 ‘북빙히’, ‘동편’으로 번역하였는데 ②는 ‘쓰릴난’, ‘아프릭’ 등 원어를 살려 번역했다. 아마도 윤치호는 지명이 다소 어려워도 그것을 고스란히 제시하는 것이 찬송가의 맛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것 같다.(이중태, 2007:244-245)<sup>13)</sup> 그리고 ①은 의역이 많다. 2행의 ‘금모래’ 3행의 ‘넓은 들’, 4행의 ‘죄의 속박’에 해당하는 내용이 ①에는 없다. 의역을 한 이유가 곡조를 더 살리기 위한 것이라면 좋지만 ①의 경우, 원문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면서 의미도 잘 통하지 않게 되었다. 확실히 윤치호의 번역이 원문을 따르면서 어떤 뜻인지 명쾌하게 해 놓았다.

정리하자면, 윤치호의 번역은 기존의 번역보다 낫다. 그 나음은 시기상 나중 번역했다는 이점에서 상당 부분 기인한다. 그러나 그 점을 감안하더라도 윤치호의 한국어와 번역 감각은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이다. 「From Greenland's icy mountains」은 상대적으로 번역의 정도가 많아 번역자

13) 이 곡은 현행 찬송가 507장에 ‘저 북방 얼음 산과’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작사가는 레지날드 히버(Reginald Heber, 1783-1826)이다. ‘해의 선교’를 위해 작사한 노래로서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북음이 전파되는 바람을 담았기에 윤치호가 실제 지명을 밝혀 번역한 것이 더 원뜻에 맞아 보인다.

윤치호의 기량을 더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윤치호는 ‘·’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표기에 대한 윤치호의 어문학적 주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나가며

지금까지 윤치호의 『찬미가』(1908)를 살펴보았다. 『찬미가』는 당시 간행된 찬송가집과는 차별되는 특징이 있다. 개인 자격으로 한국인이 펴낸 최초의 찬송가집이며 애국가 세 곡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다른 찬송가집과는 다르게 기독교 신앙과 애국의 정신이 한데 묶여 기독교 신앙과 찬송가가 어떻게 국가 만들기에 기여하려 했는지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윤치호 개인의 번역 특징을 볼 수 있다. 그의 번역 찬송은 이전 찬송에 비해 이해하기 쉽고 부르기 쉬웠다. 내용과 운율을 잘 살린 것이다. 또한 ‘·’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의 어문학적 주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윤치호는 말 그대로 풍운아(風雲兒)의 삶을 살았다. 그는 1865년에 태어나 1945년에 세상을 떠났다. 자신이 보고 겪고 느낀 일을 평생 일기에 담았다. 1908년에는 『찬미가』 재판과 재담집 『우순소리』를 간행했고 1911년에는 『영어문법첩경』을 간행했다. 『우순소리』는 당시 언론에서 “애국 사상을 일으키며 독립 정신을 배양하는 비유소설”로 홍보했으며 일제 당국에 의해 출판이 금지당하기도 했다. 또한 1912년 ‘105인 사건’으로 피소되어 3년 동안 옥고를 치렀으며 1938년 흥업구락부 사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태평양 전쟁기 한국 청년들에게 전쟁에 참여할 것을 호소하였으며 1945년 일본 중추원 의원이 되었다.

일본에 저항하기도 했으며 협력하기도 했다. 『찬미가』(1908)에 대한 시각은 윤치호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 나라의 부강과 기독교 신앙의 부흥이 되기를 바라는 개화 선구자의 결실이 될 수 있고 일본 찬송가집의 체제를 고스란히 본 따 간행한 친일 지식인의 모방작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찬미가』(1908)에는 ‘애국’과 ‘충군’의 내용이 담긴 가사가 수록되었고 그것은 당시 독자들에게 그 내용에 값하는 울림을 주었다. 일본의 『찬미가』 체제를 모방하였다고 하여 그 내용이 친 일본으로 채색되는 것은 아니다.

윤치호는 일기에서 민족의 문제를 신앙의 측면에서 자성적(自省的)으로 해석하였다. 그는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해 우리 민족이 죄를 지어 하나님께 징계를 당한다고 생각했으며 한국인은 이 상황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sup>14)</sup> 윤치호의 이후 행적을 감안하면 일견 당연하다 생각되는 식민 사관의 논리이다. 그러나 다른 의견도 있다. 이는 조선의 역사와 사회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전제에 기반한 사고라는 것이다. 비관적이며 다분히 퇴영적인 논리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나’와 민족의 회개와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 나은 미래가 확보된다는 희망적

14) 이희환, 「개화기 윤치호와 기독교 개화 사상」(이만열 외, 『한국 기독교와 민족운동』, 종로서적, 1992.), 193쪽.

전망으로 연결된다. 식민 사관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찬미가』의 분석과 이해는 많은 경우 윤치호의 행적을 ‘친일’로 보느냐 ‘반일’로 보느냐의 문제와 결부된다. 이제는 당연한 이야기가 되었지만 ‘친일’ 대 ‘반일’이라는 프레임 대신 사고와 행위의 과정을 더 면밀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윤치호는 자신의 내면을 담은 기록인 일기를 남겼다. ‘일기’라는 장르 글쓰기의 성격을 심분 고려하면서 연구한다면 우리는 윤치호 개인을 넘어 당시 민족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기초 자료

한국교회사문헌연구원(2011). 『한국찬송가전집』 1-3. 한국교회사문헌연구원.

『The Independent』

『독립신문』

### 2. 논문

孤舟. 「耶穌敎의 朝鮮에 준 恩惠」. 『青春』 제9호. 1917년 7월.

김승우(2013). 「선교사 프레더릭 S. 밀러(Frederick S. Miller)의 한국시가론」. 『비교한국학』 21권 1호. 국제비교한국학회.

김영숙(1998). 「윤치호의 『찬미가』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 논문.

박선희(2016). 「메이지 시대 창가와 일본 초기 기독교와의 상관관계」. 『日本文化研究』 제58집. 동아시아일본학회. 2016.

조서윤(2018). 「윤치호 번역의 『찬미가』 연구」. 『한국음악사학보』 61호. 한국음악사학회.

### 3. 단행본

권영민(2010). 『한국현대문학사 1』. 민음사.

김병철(1975). 『韓國近代翻譯文學史研究』. 乙酉文化史.

나진규(2019). 『21세기 찬송가의 한국인 작품들: 분석과 해설』. 가온음.

민경배(1997). 『한국 교회 찬송가사—한국 민족교회 찬송가의 편집사와 해석』. 연세대학교 출판부.

박지향(2010). 『윤치호의 협력일기』. 이숲.

宋敏鎬(1971). 「韓國詩歌文學史 下 唱歌新詩」, 『韓國文化史大系 V 言語文學史』, 高麗大學

校 民族文化研究所出版部.

윤경남(1995). 「세월에 문혀도 빛나는 별」(윤치호 지음. 윤경남 옮김. 『국역 좌옹 윤치호 서한집』. 호산문화)

윤치호(1975). 『윤치호일기』 5. 국사편찬위원회.

이중태(2007). 『찬송가 탄생의 비밀』. 선미디어.

이희환(1992). 「개화기 윤치호와 기독교 개화 사상」(이만열 외, 『한국 기독교와 민족운동』, 종로서적, 1992.)

전택부(1998). 「아, 좌옹 윤치호 선생」(좌옹윤치호문화사업회편, 『윤치호의 생애와 사상』, 을유문화사, 1998.)

조속자(1995). 『찬양가(1894년) 연구 자료집』. 장로회신학대학교교회음악연구원.

조속자(2003). 『한국 개신교 찬송가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